



책 임 자	금융위 국제협력팀장 정 종 식(02-2100-2890)	답 당 자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892)
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	마 순 사무관 (02-2100-2681)
	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 이 울 범(044-201-6701)		이 재 민 사무관 (044-201-6737)
	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장 류 승 수(044-215-4970)		신 영 주 사무관 (044-215-497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장 근 무(044-203-4240)		염 현 호 사무관 (044-203-4249)
	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 임 광 규(02-750-6663)		박 지 수 과장 (02-750-6848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부국장 윤 덕 진(02-3145-8001)		고 윤 광 선임조사역 (02-3145-8007)
	한국거래소 기업지원부장 강 병 국(02-3774-4500)		강 지 호 팀장 (02-3774-4515)
	산업은행 PF1실 부장 고 석 배(02-787-7202)		안 욱 상 팀장 (02-787-7208)
	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		조 정 화 팀장 (02-3779-6265)

제 목 :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(TF) 첫 회의(Kick-off) 개최

- 기후·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
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-

- ①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,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·감독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.
- ②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, 더 나아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가겠습니다.
- ③ 국제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

1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 개최

- 8.13일(목)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「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(Kick-off)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< 첫 회의(Kick-Off)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0. 8. 13.(목) 10:00~11:00 /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 - (참석자) 금융위(부위원장 주재) 등 정부부처,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, **UNEP FI**^{*}(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), **GCF**^{**}(녹색기후기금) 등 자문단
- * **U**nited **N**ations **E**nvironment **P**rogramme **F**inancial **I**nitiative / ** **G**reen **C**limate **F**und

-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,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 및 토론하였습니다.

-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“위협요인”이 아닌 “기회요인”이 될 수 있도록, 民官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.

-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(BIS)에서 제기한 「그린스완^{*}」 개념을 언급하면서,

^{*}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 [👉 BIS,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「그린스완 보고서(The Green Swan)」 발간('20.1월)]

-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·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(adaptation)하는 한편,

- 기후변화 완화(mitigation)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.

-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언하면서,

- 시너지 효과를 위한 民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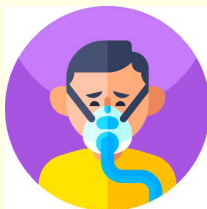
2 녹색금융 추진방향

①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-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,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※ 기후·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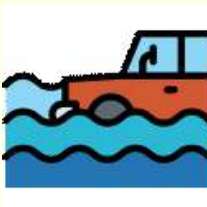
[사례①]



- ▶ 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**호흡기 질환 발병률***이 높아져 **질병보험금 지급규모 ↑, 손해율 ↑**
⇒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

* 미세먼지 농도가 $10\mu\text{g}/\text{m}^3$ 증가시 → 기관지염 입원환자 23%,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 10% 증가 [출처: 질병관리본부]

[사례②]



- ▶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**자동차 침수피해 ↑** → **자동차보험 손해율 ↑**
⇒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

*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(4대 손해보험사 8.12. 오전 9시 기준):
[접수차량] 7,036대 ('18년 275대, '19년 443대)
[추정손해액] 약 707억원 ('19년 24억원)

[사례③]



- ▶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 발생시, 은행의 **농식품산업 대출·보증·융자 등***에 대한 **상환지연**
⇒ 은행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

※ 농·식품 관련 펀드·자산운용 등을 통한 자금조달시 금융기관뿐만 아님, 개별 투자자의 수익성 저하도 가능

[사례④]



- ▶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**탄소배출권 가격 상승*** → **탄소배출기업 영업이익·담보가치 하락**
⇒ 탄소배출기업 대출은행의 건전성** 악화 우려

* ('15) 11,184원(t당) → ('16) 17,738 → ('17) 21,143 → ('18) 23,200 → ('19) 40,450

** 국내은행의 탄소배출업종(광업, 석유정제업, 화학업)에 대한 대출, 주식, 회사채 등 규모는 약 53.3조원('17末, 추정 / 출처: 한국은행)

-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금융투자시
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

※ 최근 ESG 투자 움직임

- ▶ (개념) 투자결정시 기업의 **환경보호(E)**, **사회적 책임(S)**, **적정한 지배 구조(G)**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
- ▶ (글로벌 현황) 전세계 ESG 투자규모는 지속적 확대 추세*이며,
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투자의 85% 이상을 차지
 - * ('12) 13.3조달러(16,173조원) → ('18) 30조 6,830억달러(37,329조원)
- (유럽)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·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
하는 **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***을 활용하여 ESG 투자 실천
 - * (노르웨이 국부펀드) 석탄채굴 및 발전활용 기업, 환경훼손·기후변화 유발 기업 등
(스웨덴 국가연금기금) 석탄발전 기업, 담배생산기업 등
- (미국)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美 블랙록은 '기후변화'와 '지속
가능성'을 '20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'로 삼겠다고 발표
- ▶ (국내 현황) 우리나라는 국민연금*을 중심으로 ESG 정보를 활용한 책임
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, 아직 초기단계
 - * ESG 평가기준 마련('15) →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('18.7월) → 「책임투자 활성화
방안」 발표('19.11월) → 기금운용원칙에 '지속가능성 원칙' 신규명시('20)
- 국내 설정된 **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약 3,900억원**('20.2월)으로,
아직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큰 상황

②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(단기)와, 녹색산업의 투자
유인체계 개편(중장기)을 통해
 -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가능한
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.
- 특히, 그린워싱("무늬만 녹색")*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
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
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, 명확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* Green Washing :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, 기업들이 실질적
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

※ 해외사례 : EU의 녹색금융활동 분류체계(Taxonomy)

- ▶ (산업유형 분류) 7개 대분류 항목 내 관련 있는 산업유형 명시
 - 농림수산업 (복원, 기존 삼림 관리, 가축생산, 다년생 작물재배 등)
 - 에너지 (태양광·태양열·풍력·해양에너지·수력·지열·바이오에너지발전 등)
 - 건물 (재생에너지 시설 설치, 기존 건물 수리, 새 건물 건축 등)
 - 제조업 (저탄소기술 제품, 원료플라스틱,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)
 - 상하수도/폐기물 (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,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·운송 등)
 - 수송 (저탄소 교통인프라, 수상시설 건축 등)
 - 정보통신 (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기반 솔루션 등)
- ▶ (측정방법) 산업유형 마다 6개 목표(기후변화 완화, 적응, 물, 순환자원, 오염, 생태계)와의 연계성을 정의하고 세부 측정방법을 명시

③ 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, 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.

※ 국제네트워크 논의동향

- ▶ [TCFD]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·금융정보 공시 권고안* 마련('17)
 - ☞ TCFD (Task-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)
 - * 저탄소 경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위험을 재무정보 공개에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·경영전략·위험관리·목표설정 관련 지침 제시
- ▶ [NGFS] 기후·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발족('17)
 - ☞ NGFS (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)
 - * 「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」 발표('19.4월) :
 - ① 금융안정 모니터링 및 미시적 감독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
 - ②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요소 반영
 - ③ 공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
 - ④ 금융·산업의 녹색금융 역량 동반향상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·지식 공유
 - ⑤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 구축 : TCFD지시
 - ⑥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마련

⇒ 民官합동의 TF 발족을 통해 논의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논의와 긴밀히 연계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

※ 붙임 : 손병두 부위원장 인사말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